LABOUR BULLETIN

남아프리카 노동교육원: Ditsela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1. Ditsela는 무엇인가

남아프리카 노동교육원(Ditsela)은 1996년 11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1997년 1월에 활동을 개시했다. 남아프리카 노동교육원(Ditsela)의 정식명칭은「노동을 위한 훈련 · 지원 · 교육개발원」(Development Institute for Training, Support and Education for Labour)인데, 그 줄임말인 디첼라(Ditsela)는 남아프리카 토속어인 소토(Sotho)말로 오솔길(pathways)을 뜻한다.

남아프리카 노동교육원은 예산을 주로 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노동부 지원 예산은 시민사회발전기금에서 충당된다. 이외에도 국내외 노동조합들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만, 노동교육원의 운영과 활동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서부터 교육원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운동이 주도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힘있는 노총들인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와 남아프리카노동조합연맹(FEDUSA)이 노동교육원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

교육원의 이사회를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이사회는 모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장은 최대 노총인 COSATU의 교육책임자가 맡고 있으며 대학교수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모두 COSATU와 FEDUSA의 간부들이다. 노동교육원의 전임 직원은 모두 6명으로 풍부한 노동운동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들은 노동조합운동에 가까운 여러 노동단체와 개인들의 폭넓은 지원을 받고 있다.

남아프리카 노동교육원은 조직 목표를 다음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 노동조합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을 주도하는 센터.
- 노동운동의 조직력 확대를 위한 지원자.
- 체계적인 노동조합 교육 프로그램의 건설자.
- 노동조합 교육정책 · 프로그램 · 방법의 혁신자.

또한 노동교육원은 4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방향으로 다음 6가지를 상정하고 있다.

- 노동조합운동의 가치 · 원칙 · 목표를 추구한다.
- 1997년 노동교육원 주최 교육활동가대회에서 개발한 '노동조합 교육 원리와 비전에 헌신한다.
- 각종 자원들을 교육활동가 · 연구자 · 집필가들을 늘리는데 투여한다.
- 직원들의 능력 개발에 노력한다.
- 여성들이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재정이 부족한 노동조합도 프로그램에 부담없이 참여토록 한다.

2. Ditsela의 활동

남아프리카 노동교육원의 활동은 ① 교육훈련, ② 노동조합 지원, ③ 정보 · 자원 지원 ④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따위의 네 가지로 나뉜다.

1)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노동교육원의 가장 큰 활동이다. 교육원은 교육훈련 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노동교육원은 여러 가지의 단기과정과 전문 ·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의 것이 초급과정이라면 뒤의 것은 중급과정 혹은 고급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단기과정은 되도록 많은 조합원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안문제의 이해와 실무력 향상, 그리고 기초 지식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문 · 후속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을 가진 노조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수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배우고 특정한 역할에 필요한 기술과 자질을 연마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2) 노동조합 지원

노동교육원의 노동조합 지원 프로그램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조합 지원 기능은 조직발전 지원, 교육훈련 능력개발로 나뉜다.

조직발전 지원은 노동조합의 운영 개선과 조직관리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교육원은 노동운동에 우호적인 경영컨설팅 전문가를 통해 노동조합의 행정 · 조직 ·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교육훈련 능력개발은 노동조합의 교육담당자와 교육활동가의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정보 · 자원 지원

정보 · 자원 지원 역할은 노동교육원이 남아프리카 노동조합 교육의 모든 정보와 자원의 결집체라는 조직 위상과 맥을 같이한다. 교육원을 통해 노동조합의 교육활동가들은 노동조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과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다. 노동교육원은 노조활동가들이 국내외의 도서, 문헌, 시청각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원의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4)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은 노동조합의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교육훈련 사업을

BUILDING A TRADE UNION MOVEMENT

Ditsela Educator Conference

Ditsela, is hosting a Conference of Trade Union Educators at the end of July (30 July to 2 August). The Conference will bring together educators from inside the trade union movement, as well as educators and support people from the various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who work with the trade unions. The aims of the Conference are:

- To work towards developing a consensus around an integrated trade union education, training and support system in South Africa.
- To build co-ordinated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trade union educators, trade union education support groups/institutions and Ditsela.
- To assist Ditsela to further clarify its role and develop its programme.

We hope to be joined by a number of guests – federation leadership, Department of Labour and international trade union educators.

Arbitration for Individual Dismissals Skills Courses

With the new LRA, many more organisers will find themselves representing members at arbitration hearings. A new Arbitration Skills Course has been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IMSSA and CALS (Centre for Applied Legal Studies). This course will be run in regional centres starting in July. Unions may also request that the course be delivered in-house for their own organisers and senior shop stewards. For details please contact your union or federation.

For more information on the above you can contact Ditsela at:
Tel: (011) 403-2155 **Fax:** (011) 403-1958 **e-mail:** ditsela@wn.apc.org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교육원은 교과과정 · 교육주제 · 교육방법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와 각종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3. 1998년 Ditsela 교육훈련 프로그램

올해 남아프리카 노동교육원의 가장 큰 사업은 '전국노동교육고급과정'이다. 이것은 중견 노조간부와 활동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각 노총과 노동자대학들과 협동으로 시행된다. 이 과정은 5가지 부속과정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은 한 과정에만 등록할 수 있다.

전국노동교육고급과정의 5가지 부속과정은 다음과 같다: (1) 1990년대 노동조합 조직론: 노동조합교육 고급과정, (2) 노동법 고급과정, (3) 여성지도자 고급과정, (4) 교육활동가 고급과정, (5) 노조운영 고급과정.

위의 각 부속과정은 4단계(block)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2일 걸리며 나머지 단계들은 5.5일씩 걸린다. 모든 단계는 3월과 11월 사이에 실시되며, 참가자들은 4단계를 모두 이수해야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과정에 참가하는 교육생들은 노동교육원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 연구, 독서, 리포트 제출 따위의 과제를 마쳐야 한다. 각 과정은 강의, 참여식 세미나, 워크숍, 개인 과제 작업 따위의 방법으로 운영된다.

1) 1990년대 노동조합 조직론: 노동조합교육 고급과정

이 과정은 노조간부와 현장위원들이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기술과 분석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교육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정세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을 높이며, 체계적인 이론을 개발하고, 실무 기술과 전문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과목

「노동조합의 본질」(노동운동의 역사, 정치학, 원리), 「노동자를 위한 경제학」, 「새로운 단체협상 의제」, 「법률제도」, 「조직론」, 「협상기술」, 「의사소통법」, 「통계학」

● 목표

- 남아프리카와 세계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정치에 대한 지식 확대
- 노동운동의 원리와 정책에 대한 이해 심화
- 기초 경제 용어와 개념 학습 및 산업변화 이해
- 노동조합 대응 전략 모색
- 단체협상 쟁점 분석
- 협상기술 및 전략 개발
- 조직기술과 협상능력 개발

- 문서작성 · 컴퓨터 사용 · 통계학에 대한 능력 개발

● 참가자격
- 노조교육 경험이 있는 노동조합 조직담당자와 노조 간부
- 노조교육을 받은 현장위원

2) 노동법 고급과정

이 과정은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과목
「노동법원 운영절차」, 「소송 처리」, 「단체협약서와 법정문서 이해」, 「파업 · 해고 · 임시계약직 노동자 관련 법규」, 「단체협상 관련 특별법」

● 목표
- 노동법에 대한 이해 증진
- 노동법 및 제반 법률관련 지식 및 실무력 향상
- 노동법 활용을 위한 전략전술 개발

● 참가자격
- 노동법에 대한 깊은 지식과 법무 능력이 있는 노조 간부
- 노조의 법률담당자 및 직원

3) 여성지도자 고급과정

이 과정은 여성 노조간부들에게 노동조합 운동과 현안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과목
「노동조합운동의 성격과 본질」, 「노조활동가를 위한 경제학」, 「정책개발과 법률 구조」, 「단체협상 쟁점」, 「진행 · 조정 · 기획 · 협상의 기술과 방법」

● 목표
- 노동운동사와 노동자정치에 대한 이해 증진
- 노동조합의 원리 · 정책 · 조직구조에 대한 지식 확대
- 현행 단체협약 쟁점 분석과 실무력 · 협상력 개발,
- 정책수립 · 법제정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 조직술 · 협상기법 · 작문법 · 컴퓨터 및 통계기술 습득

4) 교육활동가 고급과정

노동조합 교육활동가 혹은 교육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강의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 과정의 목적이다. 교육생들이 직접 참가하고 실습하는 방식으로 교육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체득한다.

● 과목
「노동조합 교육의 상태 및 조건 분석」,「성인교육론 · 노동교육론」,「과정기획 및 교재 개발」,「진행기법」,「교육 프로그램 운영법」

● 목표
- 노조교육론과 성인교육론 대한 이해 증진
- 노동조합 교육 방향의 수립과 문제점 이해
- 진행 기술 · 교육과정 기획 · 교재 개발을 위한 능력 제고
- 노조교육 프로그램 진행법 학습

● 참가자격
- 노동조합 교육활동가 혹은 교육담당자
- 노조교육 경험 있는 노조간부 및 현장위원

5) 노동조합운영 고급과정

점차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조직 안팎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들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이다. 이 과정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교육생들에게 제공한다.

● 과목

「노조운영과 지도부의 역할」, 「전략기획과 의사결정」, 「상황변화 대처 및 위기관리」, 「노조간부/직원 관리」, 「재정관리」, 「통신체계관리」, 「자기관리」

● 목표

- 노조 조직의 성격에 대한 이해 증진
- 지도력 개발
- 노조 사업 기획 및 실행 과정 점검
- 인력 · 재정 · 통신 관리에 대한 이해 증진
- 노조운영을 위한 필수 기법 개발

남아프리카 노동교육원은 이상의 정규과정 외에도 5일동안 진행되는 단기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모두 6개의 단기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동자를 위한 경제학 입문, ② 교섭위원을 위한 선전기법, ③ 간부를 위한 노조운영과 리더쉽, ④ 산업안전보건환경, ⑤ 신입조합원 기초과정, ⑥ 조정기법 훈련과정.

이외에도 노동교육원은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교육활동가 과정, 교섭위원 전략 전술, 법학개론, 노동법 따위의 단기 과정을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

4. 글을 맺으며

남아프리카 노동교육원이 거의 모든 재정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면서도 노동조합이 교육원을 전적으로 운영 ·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남아프리카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94년 등장한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정부는 ANC와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 남아프리카공산당(SACP)의 3자동맹에 토대를 두고 있다. 물론 1994년 이후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의 급변으로 3자동맹이 흔들리고 있지만, 남아프리카 사회에서 노동조합운동, 특히 COSATU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다. ANC정부는 권력기반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COSATU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며, COSATU 역시 ANC정부를 노동조합운동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주요한 지렛대로 인식하고 있다.

노동자에 우호적인 정부가 등장했다는 점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점은 남아프리카 국민의 교육수준이다. 남아프리카 흑인의 절반이상이 문맹이며, 흑인 노동자 대부분이 비숙련 ·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흑인임을 감안할 때 남아프리카 사회의 인력개발 수준은 국제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 상황을 반전시킬 독자적인 자원과 능력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백인들이 대부분인) 사용자들은 흑인노동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거나 무관심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교육과 인력개발 사업에 노동조합진영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 남아프리카 노동교육원(Ditsela)은 이러한 상황의 대표적인 산물인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남아프리카 노동교육원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그것의 운영과 관리의 책임은 노동조합이 전부 책임지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사정 3자를 위한 '중립' 교육기관을 내세우면서도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한국노동교육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노동교육원의 이사회는 노사정 각 5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나 발언권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1)]

남아프리카 노동교육원(Ditsela)의 사례는 교육훈련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대정부 요구에서 노총들이 서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또한 노동조합 교육제도의 체계화와 교육방법 · 교육내용의 개발은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한 나라의 노동교육원이라면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고민을 노동조합 교육훈련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던지고 있다. ❖

1) 남아프리카노동교육원(Ditsela)처럼 교육원의 운영과 관리를 노동조합이 전적으로 담당할 수 없다하더라도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한국노동교육원의 여러 활동에 대한 노총 차원의 개입이 없는 것은 한국노동교육원이 실질적인 노사정 3자 공익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그 이유가 한국노동교육원이 노동조합의 참여와 개입을 꺼리는 '관료기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조합운동, 특히 노동조합측 이사진을 파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한국노동교육원을 적극 활용할 의지나 계획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